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한국불교 씨앗 심다



‘반갑습니다’ 2016년 9월5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인근 무와송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단주를 채워주고 있다.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지난 2015년 3월1일 레바논에서 UN평화유지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를 찾은 총무원장 스님.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희망을 꿈꾸는 도반이 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출범한 제33대, 34대 대한불교조계종 집행부는 숭한 역사를 새로 쓰면서 종단 안팎으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안으로는 5대 결사를 내걸고 각종 쇄신을 이끌었으며 정부와 관계에서는 사찰 재산보호, 민족문화유산 보존 계승, 해외 한국 불교 홍보, 불교의식 현대화,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불교 등 큰 족적을 남겼다. 또한 이웃이 아파할 때 함께 손을 잡고 곁을 지켰으며 갈등이 발생할 때는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제 한 달여 뒤 33, 34 집행부는 새 집행부에 업무를 인계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8년간 실재 없이 달려온 집행부 활동 중 해외포교와 이웃종교간 화합을 담았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